한국 남녀 배구대표님 이끄는 외인 감독들

“세계 무대 활약… 영광의 시절로”

라미레스 남자대표팀 감독 “하나의 팀 만들 것”
모랄레스 여자대표팀 감독 “오고 싶은 대표팀”

이싸나예 라미레즈(왼쪽) 대한민국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페르난도 모랄레스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배구대표팀 재건 중책을 맡은 사령탑들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사나예 라미레스(40·브라질)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과 페르난도 모랄레스(42·푸에르토리코)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각오를 밝혔다.

라미레스 감독은 “한국 배구 역사의 유구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다. 남자배구가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모랄레스 감독도 “여자배구 대표팀이 과거 좋은 성적을 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말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달 남녀 대표팀 감독을 새로 뽑았다.

브라질 출신의 라미레스 감독을 선임하며 남자 배구 대표팀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을 택했다. 여자 배구대표팀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모랄레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겨 3연속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남녀 배구는 모두 세계 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태극마크를 반납한 여자배구 대표팀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에서 12전 전패, 24연패를 당했다. 2021년까지 포함하면 최근 27연패 중이다.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고,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실패했다. 2020 도쿄 올림픽의 4강 신화는 진작에 흐릿해졌다.

남자배구 대표팀은 VNL에도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었다.

파키스탄 남자대표팀을 이끌었던 라미레스 감독은 그동안 지켜봐 온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으로 “미들블로커(속공수)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경험을 통해 키워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팀이 체력, 체격 조건에서 부족하다. 체력 훈련 등을 통해 보완해서 원하는 레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모랄레스 감독은 “전술, 전략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단, 리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뛰어난 선수들이 대표팀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수장들은 리빌딩과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임무를 받아들였다.

라미레스 감독은 “이전에도 아시아팀을 맡아봤기 때문에 한국팀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바레인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내고, 파키스탄 대표팀도 발전시켰다. 한국팀을 꾸준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내 강점”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알고 있다. 선수들, 스태프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 선수들은 기술이 좋고 똑똑하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사령탑으로 세대교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모랄레스 감독은 선수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지도자로서의 강점으로 꼽았다. 모랄레스 감독은 “좋은 팀 분위기를 형성한 것도 선수들과 좋은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대표팀 감독 자리에는 항상 부담감이 있기 마련이다. 이 직업이 가진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담감을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사령탑은 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모랄레스 감독은 “선수와 코치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좋은 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미레스 감독도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내 배구철학”이라며 “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팀이 소집되면 선수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랄레스 감독은 40위에 머물고 있는 여자대표팀의 세계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선수들을 봤을 때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랭킹을 올리고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며 “배구 외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대표팀에 차출된다고 했을 때 오고 싶은 대표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15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다음달 열릴 VNL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남자 대표팀은 다음달 1일 소집, 6월 열리는 2024 아시아배구연맹(AVC) 챌린지컵을 준비한다.

/뉴시스

김하성, MLB 콜로라도전 2타점 결승타… 이틀 연속 멀티히트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타점 결승타를 날리는 등 이틀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때려냈다.

김하성은 25일(한국시각)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벌어진 2024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24일 콜로라도전에 이어 이틀 연속 멀티히트를 날린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28에서 0.240(96타수 23안타)으로 올라갔다. 시즌 타점은 15개로 늘었다.

1회초 첫 타석부터 김하성의 방망이가 날카롭게 돌아갔다.

잰더 보가츠의 안타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주릭슨 프로파의 볼넷으로 일군 1사 만루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우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주자 둘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김하성은 콜로라도 좌완 선발 투수 타이 블라크의 바깥쪽 낮은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장타로 연결했다.

김하성은 에구이 로사리오의 중전 안타 때 득점을 올렸다.

3회초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하성은 6회초 무사 1루에서 기습번트를 대 안타를 만들어냈고, 콜로라도 3루수의 악송구를 틈 타 2루까지 진루했다.

김하성의 번트안타로 무사 2, 3루의 찬스를 잡은 샌디에이고는 잭슨 메릴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 5-0으로 달아나 승기를 굳혔다. /뉴시스

전주시민축구단이 홈 2연승에 도전한다. 전주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A구장에서 ‘2024 K4리그’ 6라운드 펑창유나이티드축구클럽과 홈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거제와 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시민축구단, K4리그 홈 2연승 도전

28일 전주대 운동장서 평창유나이티드와 경기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 이하 전주)이 홈 2연승에 도전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A구장에서 ‘2024 K4리그’ 6라운드 펑창유나이티드축구클럽과 홈경기를 갖는다.

전주는 올 시즌 초반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5라운드 현재 10실점으로 경기당 2실점을 내줬다.

하지만 득점에서 11골로 경기당 2.2골을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승점 6점(1승 3무 1패)으로 8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평창을 상대로 승리해 홈 연승과 함께 선두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무승부를 통한 승점 1보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겠다는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공격에서 김도형과 오태환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중원에서는 양태렬과 이학선, 신윤호, 용환빈 심요셉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장순혁과 김창수, 박광윤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골문은 지난 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선보인 김재환이 또다시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감독은 “시즌 초반 훈련장과 홈 경기장 문제로 힘들었지만 구단과 선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가 홈인 만큼 막강 화력으로 승리를 거둬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더불어 선두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인니축구협회장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 합의”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축구협회장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 감독과 한식당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우리는 2027년까지의 대표팀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을 겸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을 이끄는 신 감독은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A조 3차전(4-1 승)을 마친 뒤 재계약에 관한 질문에 “저도, 인도네시아축구협회도 생각해야 한다. 서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U-23 아시안컵 현장을 찾은 에릭 토히르 회장은 한국과의 대회 8강전이 성사된 뒤 신 감독과 미팅을 통해 재계약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CNN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의 연장 계약이 적절한 시기에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조국’ 한국과의 맞대결을 하루 앞두고 토히르 회장이 재계약을 언급하면서 선수단 사기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신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26일 오전 2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황선홍 감독의 한국과 U-23 아시안컵 8강전을 치렀다.

신 감독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이끌어왔다. 그동안 2020 아세안축구연맹(AFF)컵 준우승, 2023 AFC 아시안컵 16강 진출 등의 성과를 냈다.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8강 진출을 이끌었다. /뉴시스